

사물인터넷으로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IoT 우수 아이디어 8건 시제품 제작 지원

전주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은 올해 K-ICT 디바이스 사업에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스마트디바이스 분야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가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를 지원하는 것은 총 8건으로 (주)솔루션

뱅크 플러스의 VR용 리얼 체험 유체 제어장치 등 지역 스타트업기업들의 아이디어과제 4건과 '시각장애인 버스승차 안내시스템 및 제어방법'을 비롯한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생들이 제안한 과제 4건이다.

8건의 과제는 최고 1000만원의 개발비와 지속적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며, 개발 완료된 제품은 클라우드 펀딩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유통망 연계 등을 통해 마케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핵심으로 급성장하는 산업분야로, 최근 모든 사람과 사물, 공간이

ICT기술을 이용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서비스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까지 4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전주시를 비롯한 판교·대구 등 전국 7개 지역을 지역 거점센터로 지정했다.

지역 거점센터에는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개발을 위한 작업환경이 마련된 K-ICT 디바이스랩을 설치, 기업과 일반인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품기획과 상품성·디자인 구현

및 검증, 멘토링, 코디네이터 연결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성식 전주시 영회영상산업과장은 "앞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분야가 사물인터넷 확산과 함께 국내·외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주는 국내 스마트 디바이스 거점지역인 만큼 지역 내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모든 사물(thing)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사람의 개입이 없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물 상호간 정보를 주고받아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공간정보 기반 조성 가속화

수치지형도·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 제공

전주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기법으로 주요정책 수립 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수치지형도 제작과 과거 항공사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간정보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시는 도로와 건물, 인구, 환경, 산업 등 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경관과 재생, 시설, 지역, 터잡이 모형으로 공간 분석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예측 가능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급속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바뀐 지형지물을 반영한 수치지형도 제작을 추진하고, 국토지리정보원과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196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개년도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항공사진으로 구축

하는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각종 건설공사 및 불법건축물 확인, 보상업무 등 행정업무에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시는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공간정보 매거진 2016년 가을호에 전주시 공간정보 주요성과 및 향후 사업방향, 비전을 소개하는 등 공간정보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과거 항공사진 디지털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내년에 시민들에게 전주시의 시간별 흐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계열 항공사진 시스템을 도입해 고품격 공간정보업무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오창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장,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여사를 비롯한 6인의 해외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의 경제학'이 지닌 의미와 국제회의의 전주 개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 행복의 경제학'

전주시가 지역의 가치를 살려 시민들이 행복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는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오창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장,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여사를 비롯한 6인의 해외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의 경제학'이 지닌 의미와 국제회의의 전주 개최 배경 등을 설명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13~14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의 '지역화 중심의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조지 퍼거슨 전 영국 브리스톨 시장, 레이몬드 엡 일본 나가누마 메노빌리지 이사, 조나단 다슨 영국 슈마허 대학 경제학과장, 하세가와 마사코 일본 CSO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각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강

연에 나선다. 또, '지역의 미래'와 '로컬푸드', '지역화폐', '행복담론'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워크숍도 진행된다.

오창환 조직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는 행복의 경제학뿐 아니라 현재 우리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 푸드(Local Food),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및 기금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담론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전주시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회의를 위해 두 번째 전주를 찾은 국제생태문화협회 로컬푸드커스(Local Futures)의 헬레나 노르베리 호

지 대표는 행복의 경제학이 지닌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호지 여사는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의 지역 세분화가 필요하다. 경제의 지역 세분화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직업을 창출하고, 사람들과 더욱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사람들이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며 "경제의 지역 세분화는 마을 안에서 모든 경제적 생산을 하거나, 국제 무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행복의 경제학은 자본보다 사람이 중요한 경제학, 경쟁보다 공생이 중요한 경제학이다"며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인 지역화폐, 행복담론, 로컬푸드 등은 전주의 미래 방향과 일치하는 것

으로 전주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함께 '사람과 지역을 잇다'는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2016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전주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70여개의 업체와 전북권역 30개 조직 등 100개 사회적경제조직이 '행매장터'의 개별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산제품을 선보인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화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학습하고 공감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 사립유치원 연합회, 생리대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전주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에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경자 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 6명은 이날 전주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청소년기 여학생을 위한 생리대 지원에 써달라며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전주시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지난날 30일 개최한

'어린이 사랑나눔 큰 잔치' 행사에서 아이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 학용품 등을 모아 판매하는 '아나바다 시장놀이', 각 유치원에서 준비한 채소, 과일, 피자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다.

이경자 회장은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이다"라며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뜻 깊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일하던 병원에서 마약류 흡취 투약한 간호조무사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병원에서 마약류를 흡취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에 전주 한 병원 간호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액체 마약류를 흡취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중증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간호조무사 신분을 악용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재 기자

도내 외국인 범죄 급증세

해마다 전북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드물었던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도 최근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9월)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총 522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살인이 1건, 강도가 11건, 강간 7건, 절도 45건, 폭력 96건, 기타 362건 등이다.

올해 전북의 외국인 범죄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에 484건 발생했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51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채 1년이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넘어섰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